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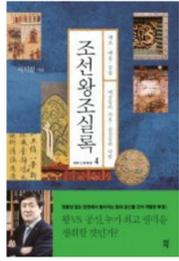
성종은 왜 공신과 사림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을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조선왕조실록4-세조·예종·성종

이덕일 지음



조선의 왕조는 장남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이 재위 1년 만에 승하했을 때 보위에 오른 이는 적자가 아니었다. 만 세 살이었던 제안대군이나 세조의 장손 월산대군이 왕권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와 구공신들은 월산대군 동생 자율산군(성종)을 후계자로 선택했다. 그들은 왜 적자와 장손을 제외하고 다른 이를 보위에 앉혔을까.

역사가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되돌릴 수 없는 데다 이전과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역사는 가장 탁월한 미래학'이라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사학자 이덕일은 사료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대중과 호흡하는 역사서를 써왔다. 1997년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를 시작으로 줄곧 한국사에 숨겨져 있거나 뒤를린 부분을 자신만의 감각과 문체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왔다. '조선 왕 독살 사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는 그러한 결과물이다.

이번에 발간된 '조선왕조실록4-세조·예종·성종'은 부제부터 눈길을 끈다. '백성들의 지옥, 공신들의 낙원'은 나라로 떨어진 백성들의 삶을 토대로 온갖 특혜를 누렸던 특권층에 대한 이야기다.

'조선왕조실록'은 500년 정신이 담긴 위대한 사료다. 일반적으로 '조선은 낙후되고 정체된 나라'라는 표현은 일제강점기 식민사학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불당과 당쟁의 폐해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518년이라는 긴 시간 왕조가 유지됐던 것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위대한 기록 유산 때문이다. 저자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제도, 다시 말해 시스템과 정신에서 기원을 찾는다.

연산군 때 선비들이 화를 당한 '사화(士禍)를 사관들이 당한 '사화(史禍)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죽임을 당한 이들 대부분이 사관들이어서 그런 표현이 나왔을 것이다.

조카인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세조는 권력의 토대가 허약했다. 공신들의 도움 없이는 통치기반을 굳건히 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세조의 권력은 공신들과의 연합 정권이었다. 그는 보위를 찬탈한 후 공신들에게 전리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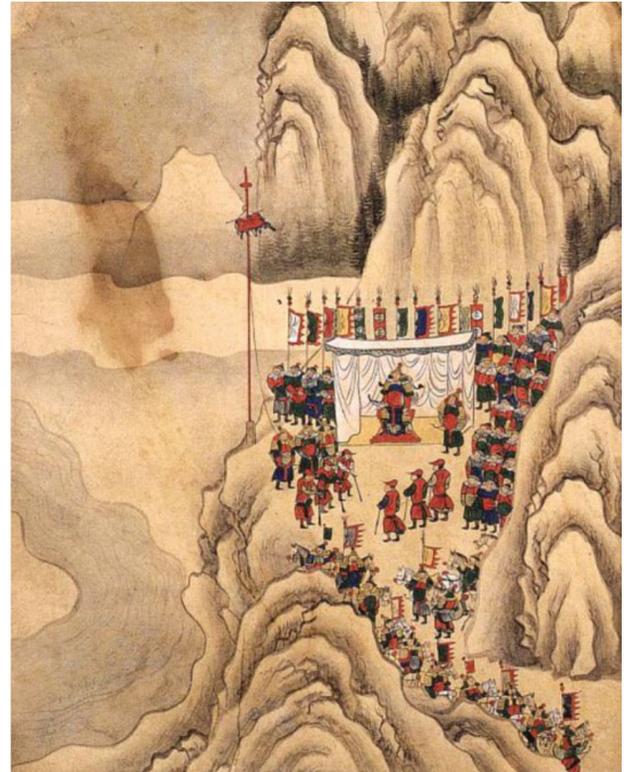
하사했다. 관직 매매권과 토지는 당연한 것이었다. 심지어 단종 측과 사육신의 아내들까지 '배분'했다. 신속주는 단종의 왕비까지 노비로 달라고 요청을 했을 정도다.

세조가 자신의 편에 섰던 공신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은 권력의 속성 때문이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예에서도 통용될 수 있겠다. 자신이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의식했다. 그는 공신을 견제하기 위해 이시에 난을 진압한 귀성군 이준 등을 신공신으로 삼아 조정에 포진시킨다. 물론 그렇다고 구공신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세조 뒤를 이은 예종은 왜 재위 1년 만에 의문사했을까? 그는 아버지 세조와 달리 과감하게 공신을 척결했다. 관직 매매는 물론 백성들 세금을 대신 내고 나중엔 서너 배로 돌려받는 대납도 금지했다. 공신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조치는 어머니 정희왕후의 친정 집안까지 미쳤는데, 예종이 의문의 독사를 당했지만 정희왕후와 공신들이 이를 무시한 것은 저자의 내력과 관련 있어 보인다.

열두 살에 왕이 된 성종은 숙부의 의문사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처음엔 어느 정도 구공신들의 의견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사림을 기용했다. 정치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했던 성종도 그러나 여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았다. 여성 편력은 왕비 윤씨와 충들로 이어졌고, 후일 인수대비와 정희왕후 등 왕가 여인들이 나서 왕비를 폐위하는 사건으로 번졌다. 결국 성종은 연산군이라는 불안한 유산을 남긴 채 눈을 감는다.

저자는 묻는다. 중대한 기로에서 역사 속 인물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과 선택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다산초당·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이를 싫어했던 예종은 그를 제거해 신공신 세력을 몰락시켰고 그로인해 공신 제어에 실패했다. 1467년 남이가 이시에 난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등림영회도'.

헤세와 융

미구엘 세라노 지음, 박광자·이미션 옮김

헤세와 융은 공통점이 많다. 일단 1870년대에 태어나 1960년대에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1917년 처음 만나 깊은 교류를 이어왔으며 각기 서로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정영울 작가의 말처럼 헤세와 융은 살아온 환경과 국적은 다르지만 '영혼의 쌍둥이'와 같은 운명을 지녔다. 그럼에도 이들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정진했다.

예술과 학문 분야의 거장인 두 사람의 가르침을 묶은 책이 발간됐다. 철학 출신 작가, 외교관인 미구엘 세라노가 펴낸 '헤세와 융'은 두 거장의 사유를 풀어낸다. 청년 작가 미구엘 세라노가 헤세와 만난 것은 1951년 6월이었다. 첫 만남의 시간에서 세라노의 눈에 헤세는 고행자나 고해자로 다가왔다. 청년 작가는 평소 경외심을 갖고 있었던 헤세와의 만남에 전율하며 헤세의 작품과 동양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세라노는 스위스에 머물고 있는 융과도 만나 인연을 맺는다. 세라노와 두 거장은 직접적, 간접적 만남을 매개로 사랑과 죽음 그리고 종교 등 인간을 둘러싼 원초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영혼의 답은 결코 불렸던 두 거장이 전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혜는 우리들에게 삶과 예술, 인간과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한국융연구원 이나미 상임 교수는 추천사에서 "기계와 물질지상주의, 효율성과 편의를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치를 외면하는 21세기의 성정을 치유해줄 수 있는 헤세와 융의 생각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익히는 데 좋은 참고서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북유림·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지털 개념어 사전

구본권 지음

코딩, 메타 인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시간의 역설, 정보 비만, 답페이크, 매크로...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눈앞에 도래해있다. 디지털 기술과 기기는 오늘의 세상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야 할까. 디지털 인문학자이자 IT 전문 저널리스트 구본권은 저서 '디지털 개념어 사전'에서 디지털 시대 핵심 키워드 100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겨레 '유래', '스마트 돋보기' 등에 쓴 칼럼 중 디지털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글 가운데 일부 수정을 거쳐 수록했다. 키워드를 토대로 오늘의 디지털의 흐름과 이에 대한 우리의 관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로봇에 밀려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한다. 오늘의 양상은 변하는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배우는 것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는 견해다. 그러나 그는 "응용 기술이 빨리 변할수록 교육은 핵심과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구글 직원들의 입사와 승진, 퇴사 등을 분석한 '육시전 프로젝트'는 이색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중요한 자질 중 과학과 기술, 수학, 공학 등 전문성이 짙던 여덟 번째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소통과 청취 잘하기, 관점과 가치가 다른 이들에 대한 통찰 등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진짜 중요한 결정은 결국 사람이 한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즉각적인 노출은 집중력과 사고를 잃게 한다. 저자는 1년에 두 번 오두막에 머무는 생 각 주간에 갖는 빌 게이츠, 한두 달 외부와 단절된 채 명상에 잠기는 유발 하라리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한겨레출판·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소한 세계사

조한욱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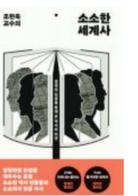
'소소한 이들의 소소한 지혜' 인간의 역사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쌓은 인물들만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법은 없다. 또한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뒤늦게 조명받는 인물들도 있다. 이미 알려진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하지만 애초에 그 존재조차 모르는 역사 인물이 대다수이다.

최근 출간된 '조한욱 교수의 소소한 세계사'는 기존의 앞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나서게 한다. 책을 쓴 서양사학자 조한욱 교수는 '신문화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한국 사회에 알리며 역사에서 소외된 민중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삶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책은 그가 지난 10년간 발표해온 칼럼들을 선별해 엮은 것으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 330여 개는 날짜 순으로 분류됐다. 저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사 속 인물들과, 대중의 시야 밖에서 인류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해온 동시대적 인물들을 소개한다.

핍박받는 평민들의 삶을 위해 살다가 반역자로 몰린 로마의 장군 만리우스 카피톨리누스, 17세기에 여성 음악인으로서 성공을 거둔 카치니 자매를 비롯해 로마 최고의 지배자라는 호칭을 받은 트라야누스 황제, 아프리카의 체 게바라 토마 상카라, 고대 말 이집트 최초의 여성 수학자 히파티아와 같은 인물들은 세계사에 투영된 오늘의 우리 사회 모습이 어떠한지, 어떤 흐름을 거쳤는지를 보여준다.

각 이야기 끝에 적힌 핵심 키워드는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색인을 통해 관심 있는 주제만 골라 읽을 수도 있다. <교유서가·2만2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